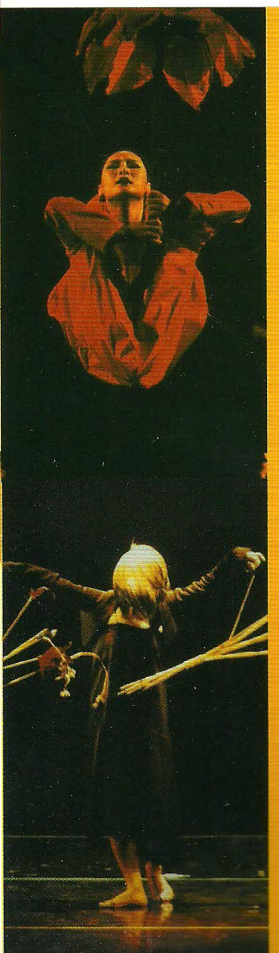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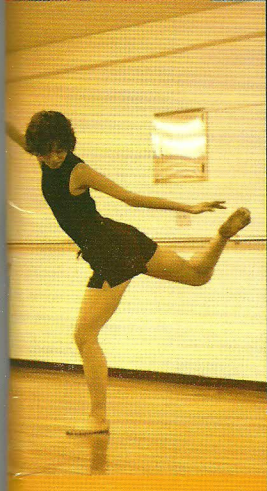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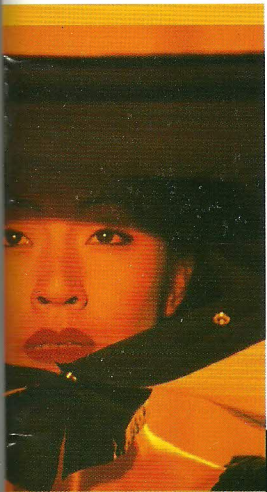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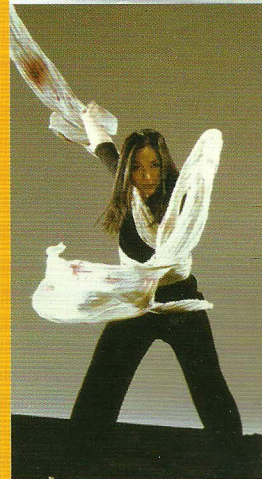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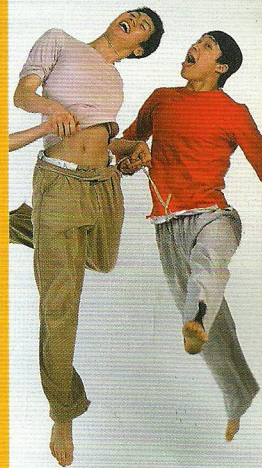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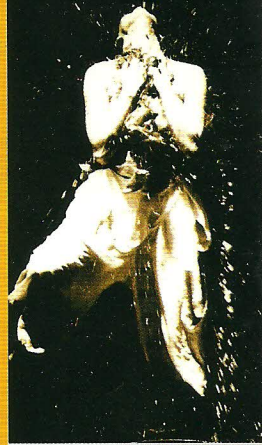


댄스포럼 創刊 3주년 기념

평론가가 뽑은 제5회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2002

Dance Festival for the Critics' Choice of Young Artists 2002



Dance Vision Korea

2002.6.20(목) ▶ 23(일) 오후 7시30분
문예진흥원예술극장대극장

주최 댄스포럼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춤평론가회 | 협찬  LG화학

www.lginsure.com

6.20 THU



김윤수 <공깽>

김선아 <The Edge of the Sea>

김성옥 <Deep>

김호진 <나는춤>

6.21.FRI



Dance Vision Korea

6.22.SAT

임현미 <길 잃은 날>
김은희 <단물>
고정연 <숨쉬이는 무대이>



6.23.SUN



댄스포럼 創刊 3주년 기념
평론가가 뽑은 제5회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2002

Dance Festival for the Critics' Choice of Young Artists 2002

자문 | 趙東華 추천평론가 | 李盾烈 金泰源 金采賢 李鍾浩 張光烈 成基淑 李炳玉 金敬愛
스텝 | 조명디자인 이인연 음향·도명호 무대감독·김예곤 행정·황진수 진행·최미선 영문·김금발미 디자인·이혜진

김윤수 - 공(空)

이번 작품은 무언가 모르게, 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으로부터, 비워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세상 일에 대한 관통의 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김선아 - The Edge of the Sea

비사실적인 비주얼과 계획적인 단순함... 그리고 단편적인 상황의 극적 확대.

이번 작품에서는 추상적인 움직임과 드라마틱한 상황을 극적으로 배치하여 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바다의 다양한 표정들을 신체에 대입하여 추상적으로 풀어내면서 정형적인 발레 동작의 재구성 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탄력적인 신체 디자인으로 각 움직임을 보다 유연하고 에너제틱하게 구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작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클래식 발레에 기저하는 이야기 전개(story telling) 형식을 가진 발레나, 그림만으로 구성되는 추상발레가 아닌 그 둘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김성옥 - Deep

같은 공간, 또 다른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적응하는 사람들, 그 속에 깊이 감춰진 자신의 존재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을 시작한다.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빛과 어둠으로 비추어 그것이 주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그려본 것이다.

김호진 - 나는춤

「나는춤」은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는 테크놀로지(디지털, 바이오, 나노 등)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일상세계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무대 작업이다.

「나는춤」에서는 몸, 그 존재를 첨단매체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몸과 소리 그리고 빛이 주는 에너지 그 자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무대 공간을 연출하려 한다.

「나는춤」에서 무용수의 몸은 생각하는 에너지 덩어리이며, 여러 악기의 소리는 알 수 없는 파장을 만들어 내어 몸이라는 규정하지 못하는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빛이 그들을 그늘에서 드러내어 다양한 공간 분할로 감정의 색깔을 선보이게 한다.

작품 「나는춤」은 디지털 테크놀러지에 의해 인간의 오감이 과거와 다르게 전개되는 요즘의 우리의 나는 몸, 나는 춤을 또 다른 상징으로 시각화 해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임현미 - 길잃은 날

끝없는 안으로 부터의 혼돈은 일상을 무너뜨린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이루며 살고 또 아파한다
삶의 처음은 희망이다.

그 희망의 뒤편에 혼돈을 잠식시키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일상이 희망이 되는... 파열음.

그것은 그리움이고 사랑이고 일상에서 한번쯤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이 아닐까.

김은희- 단물

우리가 사는 이곳은 여러 사건으로 뒤엉켜 있다.
이 작품에서는 남녀의 예를 들었는데
쉬운 만남과 쉽게 헤어지는 이별
상대야 어떻게 간에 나마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즉 일종의 껌처럼
단물이 빠지면 뱉어버리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우리는 단순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정연 - 숨쉬이는 목내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좌절이 죽음이라면, 인생의 가장 큰 신비 또한 죽음이다. 죽음은 삶의 그늘
속에 숨어서 항상 삶을 노려보고 있는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이 동반자가 아닌 '하나'라는 관점, 김형
원의 시에 나타나 있듯이 '목내이(미이라)'가 죽은 자를 지칭하는 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예찬자로 등장한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기호임을 증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리는 피라미드를 중심 모티프로 잡고 그리스·로마 신화와 이집트 신화를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았다. 요컨대 그리스·로마 신화 속의 시지푸스가 타르타로스의 언덕 위로
돌을 밀어올리는 행위는 그것이 신들을 우롱한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운명을 거부하고 영생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 매장지를 키우던 파라오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프로메테우스 역시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의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해 제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의 헛된 욕망을 상징하는 존
재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매장지를 지키며 인간에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서 잡아먹었다는 스
핑크스는, 나의 영생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담보로 잡았던 모든 인간의 초상이다.

또한 이집트 신화 속의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통과례인 '두아트' 역시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아누비스와 호루스라는 기괴한 신들에 의해 진행되는 이
심판은 '저울의 평형 여부'로 죽은 자의 구원을 결정짓는다고 하는데, 한쪽 저울에는 죽은 자의
심장(이집트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지능이 있는 곳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양심을 움직이는 것)이,
다른 쪽에는 진리를 상징하는 깃털이 담겨 있어서 심장과 깃털의 무게가 평형을 이루어야만 영생
의 전망이 주어진다고 한다.

소포클레스의 상상력을 빌리면 인간의 오만함이란 언제나 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진 몸부
림인 것이며 결국 인간은 정해진 운명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엄숙하다. 결국 우리는 기괴한 상상력을 바
탕으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에 가득 차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묻
고 싶은 것이다.

'너희의 심장은 심판의 저울 위에서 평형을 이룰 수 있느냐' 라고.

길 A day of war 임현미 날

인후 | 임현미
무대미술 | 박철호
조명 | 신호
사건 | 권은성
의상 | 이나경
음악 | Eduardo Sandoval 의 Verso MannettaM
JFONG With rocks and stones and trees 중에서 - Don't
Get Exited Broken
공연시간 | 21분

작품 내용

빨래를 널었다
사지를 늘어뜨린 나의
육신을
창천에 표백하듯
내다 걸었다.

행복하는 사람처럼
두 팔을 들고
사모하기에는 아직 눈부신
오늘은 해를 향해
가슴을 풀었다.

지금 나는 별로 큰
소원도 없고
그렇다고 흐느끼게
설운 일도 없지만
그리움을 알리는
하얀 깃발 하나는
마지막 별처럼 떠 있게
하고 싶다

Endless chaos from inner mind destroys the daily life. We don't know what we want to get and what we should see in life, we live everyday and sometimes feel a pain. The start of life is hope. I believe daily life turns into hope. Such a belief makes me look at the sky in busy life. So I hang out clothes to air as drying my body in the sun.

임현미 (林賢美)

Lim Hyun Mi

부산대 졸업
주요작품 | 「폭포」 「완행감」 「선물」 「상저속의 아버지」 외



송성아 김보경 박근태 염지연 남대우

Dance Festival

시원스런 필치의 단단 간결한 미감

Ordering away

민족미술연구소는 부산에 있다. 채희완 소장을 비롯 부산 및 영남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민족미술의 대장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민족미술연구소가 춤에 대해 쏟는 열정은 전세계 어느 미학 연구 기관에 비해 유다르다. 이 연구소는 해마다 젊고 참신한 춤꾼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을 부산에서 열어 왔다. 춤에 대해서만 그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족미술연구소 구성원들의 춤에 대한 인식이 아무튼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지난 늦여름 임현미의 「폭포」를 서울에서 보았다.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이 서울 나들이 했을 때였다. 임현미가 출품한 독무 「폭포」는 과묵한 가운데 열기를 머금었고 걸은 담백하되 내심 화창하였다.

99년도 민족춤제전에 트러스트현대무용단은 몽골 전사 키야트의 회상담을 출품하였다. 실크로드를 질주하던 옛 영화를 뜻내 그리던 몽골 전사는 지금도 살아 있을 몽골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였다. 키야트의 회상담을 이야기한 작품도 작품이려니와 여기서 춤꾼들의 몸 쓰임새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곤 하였다. 그 속에서 임현미도 그날의 전사로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후 시간이 보이던 임현미는 「폭포」를 들고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에 출품하였다. 「폭포」는 춤꾼 임현미의 독무작이다. 언뜻 보기엔 소박한 구조의 소품으로 여겨질 만큼 단순한 구도로 이어진 작품이다. 게다가 결말부러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 세례를 서서 견디는 모습으로 무대가 압전하는 것으로 끝나니 상식적인 작품이라는 인상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상식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몇 군데의 기복은 이미 상식을 정지시키고 있었다. 내려 쏘는 폭포는 끈은 소리의 은유이며 한참 배회한 다음 춤꾼은 세속을 떨구고 폭포수에 몸을 내맡긴다. 대나무 한 그루 옆을 지나 다소곳이 느린 걸음으로 서성덜 동안 춤꾼은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양다리를 최대한 벌려 몸통을 숙여가며 양팔을 쭉 뻗어 앞으로 혹은 옆으로 휘날리는 동세는 상체와 하체를 각기 극대화시킨다. 이들 자세로 빠르게 진행되는 전진 후퇴 정지 동작들은 온몸의 터져나는 이미지를 감지하도록 유도하였다. 명상적인 배회, 장대한 진폭 그리고 폭포수 속의 몰입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틀거리는 평범함을 넘어선 간단명료함을 비추하고 있었다.

신인이면 대체로 발표 회수가 소략해서, 임현미의 경우도 몇 점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인상뿐 아니라 작품은 간결하며 단단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임현미의 특징점이라 하겠다. 세부 기교의 잔가지를 쳐내고 굵은 선으로 그어대는 임현미의 시원스런 필치는 현대무용 장르에서 유별난 표현으로 연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채 현(金采賢) Kim Tchae Hyeon



6. 22. SAT · 23. SUN

al for the Critics' Choice of Young Artists 2002